‘조선 승려 장인’ 면면을 만나다

국립중앙博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

내년 3월 6일까지 전시 진행
승려장인 주제 첫 전시 ‘눈길’
미디어 아트 활용 이해 높여

33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보물 용문사아미타설법상 비롯
僧匠 단응 · 신겸 作 등 한자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서 불상과 불화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신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예술작품이다. 경전에 따르면 처음 불상을 만든 이는 ‘비수갈마천(공작에 능통한 신)’이다. 현실에도 불상과 불화를 만든 ‘비수갈마천’이 있었으니 바로 ‘승려 장인(僧匠)’이다. 수행자이자 예술 장인이었던 ‘승려 장인’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내년 3월 6일까지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조선시대 승려 장인들을 조명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 불교미술 열쇠, 승려 장인

그동안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이 시기의 불교미술 또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1592~1598) 이후의 조선 후기에 불교미술은 활발히 제작됐으며, 현재 전국의 사찰에는 이 때 만든 수많은 불상과 불화가 전한다. 그중에는 다채롭고 화려하며 수준 높은 작품 또한 적지 않다. 이는 승려 장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승려 장인은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지닌 출가승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승려 장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신앙의 대상인 부처를 형상화하는 조각승(彫刻僧)과 화승(畵僧)이 중심이 됐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해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며 기술을 전수했다.

최근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등에 의해 승려 장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그들 유파의 계맥과 작품 양식들이 조명되기 시작했고, 색난의 작품은 국보로 승격 · 지정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조각승 단응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조선 승려 장인 대표작 총망라

국내외 27개 기관과 15개 사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보 2건, 보물 13건, 시도유형문화재 5건 등 총 145건을 출품하는 대규모의 조선시대 불교미술전이다. 전시된 작품의 제작에 관여한 승려 장인은 모두 366명이다.

특히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에 활동한 조각승 단응(端應)이 1684년(숙종 10)에 불상과 불화를 결합하여 만든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은 이번 전시를 위해 337년 만에 처음으로 사찰 밖으로 나왔다. 크기가 3m에 달하는 대작인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공간 하나를 활용해 오롯이 설법상을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붓의 신선’으로 불렸던 18세기 전반의 화승 의겸(義謙)이 1729년(영조 5)에 그린 ‘해인사 영산회상도’(보물),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화승 화련(華蓮)이 1770년(영조 46)에 그린 ‘송광사 화엄경변상도’(국보)도 서울 전시는 처음이다.

미디어 · 설치미술 등 눈길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 등으로 불교미술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도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자 예술 장인인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는 불교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킨다. 전시 도입부 영상 ‘손으로부터’는 장 줄리앙 푸스의 작품으로 나무와 돌, 비단과 삼베 같은 평범한 재료가 승려 장인의 손끝에서 불상과 불화로 완성되는 과정을 그려낸다.

전시 제3부의 실감 영상 ‘화엄의 바다’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를 선재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알기 쉽게 풀어낸다. 또한 검색 키오스크를 설치해 전시에 출품되지 않은 여러 승려 장인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조선 후기의 조각승은 1000여 명이고, 화승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수의 승려 장인이 활약했던 이 시기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르네상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별전이 조선의 승려 장인과 이들이 만들어낸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령사지 오백나한, 첫 해외 나들이

시드니 파워하우스博서
내년 5월 15일까지 전시
韓 · 호주 수교 60년 기념



전시된 창령사지 오백나한의 모습.

고려시대 조성된 ‘창령사지 오백나한’이 첫 해외 전시 길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은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시드니 파워하우스박물관에서 내년 5월 15일까지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워하우스박물관은 1879년 시드니국제박람회를 계기로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설립한 호주 대표 박물관이다.

파워하우스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유물을 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원,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호주 외교부 산하 호한재단이 후원하는 등 양국 다수의 기관이 협력했다. 특히 영월 창령사 터에서 출토된 나한 석조상의 첫 해외 전시로, 파워하우스박물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폐쇄 이후 처음 선보이는 특별전이다.

오백나한은 2001~2002년 강원도 창령사 옛 절터에서 발굴된 석조상으로, 한국 불교의 황금기인 10~14세기 사이의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한’은 산스크리트어 아르한(arhat)을 한자로 음역하여 만든 ‘아라한’의 줄임말이며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의미한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석가모니의 제자 나한상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의해 정교하게 복구되었고, 이후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시로 처음 소개됐다.

이번 호주 전시에서는 1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쌓은 김승영 설치작가의 ‘타워(Tower)’ 작품 곳곳에 50점의 나한상과 한 점의 부처상을 배치하고, 오윤석 사운드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규모 체험형 전시로 구성됐다.

리사 하빌라(Lisa Havilah) 파워하우스박물관장은 “오백나한전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로 꼽혔으며, 이처럼 훌륭한 전시의 첫 해외 특별전을 호주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국제기관 및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우리 박물관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호주 관람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수리 힘 모은다

전통건축수리재단 · 안동시청 12월 6일 업무협약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석탑’의 수리를 위해 문화재 전문 법인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 산하 특수법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과 안동시청(시장 권영세)은 12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의 체계적인 수리 · 보존 · 활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안동시는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부재의 보존처리, 구조보강, 전탑 조립과 주변정비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 화강암과 전돌을 이용하여 쌓은 높이 약 7m의 탑으로,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조탑리 오층전탑은 우리나라 전탑 중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부(塔身部, 몸돌) 전체를 화강석으로 조성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부재의 균열과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돼 보수에 들어갔고, 보수를 위한 가설시설의 설치, 주변 발굴조사 및 기존 전탑 해체 등을 추진한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전탑의 중요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고건축, 전통재료, 보존처리, 구조 등)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자문을 받아 수리공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또한, 전탑의 수리와 관련된 수리기준과 전돌의 재사용기준 검토 등에 연구 성과는 수리기술 향상과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제11회 계절발표회 연다

오는 12월 18일 안양본원서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지역친화적 포교 활동 방안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제1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한마음선원의 지역친화포교 활동과 개선 방안’을, 이현중 충남대 교수가 ‘대행사상과 주인공 관법’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석환 동국대 교수, 이상호 서강대 박사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계절발표회는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031)470-3276/3277 신성민 기자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악몽자주꿈,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